

문화전당 새로운 랜드마크 '미디어 월' 존치 방안 없나

(media wall)

■ 옛 전남도청 복원 설계안... 옛 모습 복원 위해 철거 예정

27일 발표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설계 초안에 따르면 아시아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을 담당해온 미디어 월이 철거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복원계획과 이번 설계 초안에는 복원 공사가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미디어 월을 철거하기로 돼 있다.

5·18 당시 완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 도청 복원이 완료되면 도청 건물을 가리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복원대책위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다른 이유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80년 5월의 가치를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계와 시민들은 도청 원형 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면서도 도청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감안해 미디어 월을 존치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음질의 다채널 음향시스템을 통해 5·18의 역사성과 가치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데 미디어 월만큼 훌륭한 '도구'가 없다는 것이다.

옛 전남도청 후면에 위치한 미디어월은 가로 75m, 세로 16m 규모의 철골구조물이다. 국내 최초의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 지난 2017년 1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아시아문화전당이 미디어아트 활성화를 위해 설치했다. 이후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재지정되면서 미디어 월은 시민들과 함께 창의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돼왔다.

미디어 월의 장점은 야간에도 화면을 통해 미디어아트 작품은 물론 다양한 전시 작품을 보여줄 수 있다는 데 있다. 일례로 지난 10월에 개최된 '2019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아시아문화전당 복합 6관과 미디어월, 하늘마당 등에서 작품이 상영됐다. '치유도시' (white Magic City)라는 주제로 열린 페스티벌은 광주의 이타

국내 최초 멀티미디어 플랫폼

5월 행사화 다양한 작품 전시

문화계 "문화자산 보존" 목소리

주의를 구했다.

하준수 작가의 '뺨과 꽃'은 민주화를 위해 삶을 버린 모든 사람들을 추모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1980년 5월, 이곳에서 목숨을 던져 우리를 구한 모든 영령께 이 작품을 바친다"고 밝혔다.

특히, 당시 페스티벌에서는 밤 10시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미디어 월을 통해 상영되면서 밤에도 수많은 지역민과 타지역민, 외국인들이 5월을 형상화한 작품뿐 아니라 광주의 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미디어 월은 단순한 옥외 전광판 이 아니다.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문화전당 내부 광장, 옛 전남도청 후면에 위치한 미디어월은 건물과 신건물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곳에선 5월 진실을 알리는 미디어아트 작품이 수시로 상영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작품의 쇼케이스도 펼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시아문화전당 건축물이 모두 지하에 있는 관계로 그동안 미디어 월은 랜드마크 기능을 오롯이 담당해왔다. 철거 이후 이에 대한 이전 및 대체, 철거 방식 등 대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디어 월을 없앤다는 것은 자칫 소중한 문화자산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복원추진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복원 계획과 설계 초안에도 철거가 예정돼 있지만 시민을 비롯한 5월단체 등의 철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옛 도청 복원 계획에 따라 철거될 예정인 미디어 월은 그동안 5·18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많은 미디어아트 작품을 비롯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지난 5월 문화전당에서 열린 'MAY PEACE FESTIVAL'에서 선보인 정지영 작가의 '미디어 월 퍼포먼스 빛 리허설' 장면. /김진수 기자jeans@kwangju.co.kr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길 열렸다...진입도로 예비타당성 통과

1156억원 들여 연륙교 건설

아치·사장교로 2023년 준공

4년 뒤인 오는 2023년에는 여수 경도를 차를 타거나 걸어서 둘러볼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에 필요한 연륙교를 건설하는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전남도가 추진중인 경도지구 개발 및 서남해안 관광허브 조성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경도 연륙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원안 의결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앞서 경도 연륙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 대비 편익성(B/C)이 1.68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남도는 앞서 산업부를 비롯해 광양청, 미래에셋 컨소시엄 등 관계자들과 경도 진입도로 개설 타당성과 사업 추진의 지 및 정책적 타당성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경도 연륙교는

1156억원(국비 40%, 지방비 40%, 민자 20%)에 이르며 총연장 1.325km(2차로)로 아치고, 사장교 등 경관이 수려한 교량으로 건설, 여수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게 전남도 구상이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현재 진행되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설계비 20억원을 반영, 조속한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애초 경도 진입도로는 정부예산 확정 당시인 지난 9월만 해도 예비타당성조사 가 완료되지 않아 설계비를 반영하지 못

한 바 있다.

전남도는 설계비를 확보한 뒤 내년 1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4월) 등을 거쳐 내년 연말 적격사업자를 결정, 공사에 들어 오는 2023년 12월 말 준공, 개통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경도 진입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도 개발을 통해 관광만권이 남해안권의 해양관광 중심지가 되도록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문 대통령 "메콩과 한국은 평화와 번영 동반자"

정상회의 공동 발표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메콩과 한국은 사람이 행복할 평화와 상생번영의 동아시아"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메콩 정상회의를 마친 뒤 부산 벡스코에서 공개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3억명에 달하는 메콩과 한국의 국민이 서로 긴밀히 교류하며 함께 잘사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한-미인바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과 같은 도로, 교량, 철도, 항만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역내 연계성 강

화에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메콩 국가들의 성장과 함께하고, 미래 상생번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하며 협력을 계속했다"면서 "지나해 한-메콩 무역 규모는 2011년 대비 2.4배가 증가한 845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메콩 정상들은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며 "한-메콩 비전"을 바탕으로 메콩과 한국은 상호 경험을 공유해 공동번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은영의 '그림 생각'

(291) 경매

최근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1913-1974)작가의 점화 시리즈 가운데 가장 큰 작품이자 유일한 두 폭 그림인 '우주'가 132억 원에 낙찰되어 화제다. 한국적인 구성적 아름다움을 승화시킨 추상화가로 한국미술사에 큰 획을 그었던 작가가 세계 미술계에서도 한층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경매에 대한 관심도 덩달

예술품의 가치, 돈인가 아름다움인가

아 커진 것 같다. 미술품 경매가 아직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지만 예술의 가치를 평가할 확고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매에서 거래된 예술작품이나 가격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예술의 가치를 미적? 미술사적으로 중요하거나 예술의 의미 있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작품에서 찾기도 경매나 아트 페어 등 미술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돼 있는가를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 같다. 우스갯소리로 예술가들은 만나면 돈 이야기를 하고, 은행원들은 예술작품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는 것일 게다.

영국의 현대 예술가, 그래피티 아티스

트,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뱅크시(1974-)의 작품 '모론(Moron 바보)'은 아예 "이 쓰레기를 사는 바보 같은 당신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쓴 작품을 포함해서 경매하고 있는 현장의 분위기를 그린 그림이다. 예술을 진정으로 좋아하기보다 경매에 참석해서 작품을 구매함으로써 예술계의 비중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세속적 욕망을 연연 중에 풍자하고 있다. 뱅크시의 작품에서 처럼 '자기 과시'를 위해 비싼 작품을 구입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터이지만.

스스로를 예술 테러리스트라고 칭하기도 하는 뱅크시는 지난해에 자신의 작품 '풍선을 든 소녀'가 경매장에서 15억 원



뱅크시 작 '모론'

에 낙찰 된 직후 작품 프레임 밑에 장치해 둔 분쇄기를 원격으로 조정해 그림을 파쇄 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부르주아 취향의 상업적 미술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뱅크시의 작품 또한 높은 가격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것이 참 묘하다.

<광주시립미술관 학예관·미술사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새로운 세계를 보다 신세계안과

스마일·라식·라섹·노안·백내장 수술

신세계안과 1566-9988

옛.밝은광주안과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